

##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김 은 성

- 고양 중산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 2016년도 5급공채 인사조직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프란츠 카프카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합격수기 역시 수험생 분들에게 카프카가 말한 ‘도끼’가 되어야 하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험기간 중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나태함을 다잡았듯이, 제 수기가 수험생 분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수기를 씁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부방법은 저에게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II. 수험기간

저는 원래 기자나 PD 같은 언론인을 꿈꾸고 있었으나, 신문기사들을 꼼꼼히 챙겨보다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행정고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정고시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 2015년 시행된 PSAT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받아 풀어본 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 2016년에 행정고시에 응시하였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전에 응시한 적은 없습니다.

### Ⅲ. 공부방법

#### 1. 제1차시험 공부방법

##### (1) 언어논리 (95.00점)

언어논리는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문제들을 크게 독해와 논리 문제로 구분하고 풀었습니다. 독해 문제의 경우 따로 연습하지 않았고 넘겨짚지 않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제시문을 읽다보면 저의 사전지식이나 선입견 때문에 제멋대로 내용을 추측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항상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논리 문제의 경우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으로 <논리와 비판적 사고>(김광수 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처음에 나오는 명제 파트 정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제가 틀렸던 논리 문제는 여러 번 다시 풀어보고 시험 전날에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강의나 모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 (2) 자료해석 (90.00점)

자료해석은 제가 매우 걱정하던 과목이었습니다. 기출문제나 범물저널 모의고사에서 항상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해석은 점수 욕심을 내지 않고 방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다 풀지 못하더라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문제는 포기하였고 간단한 문제는 간략히 검산을 했습니다. 또 문제를 ‘찍을’ 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PSAT 기출문제들을 놓고 각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몇 번인지, 문제 유형과 정답 선지 숫자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령 총 40문제 중 동일한 선지가 정답인 문제는 7개~9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8개인데, 문제를 찍을 때 이를 고려해서 찍었습니다. 강의나 모강은 듣지 않았고 학교 고시반에서 진행한 석치수 강사님의 8시간짜리 특강은 1번 들어봤습니다. 다만 제가 1차에서 낙방했다면 모강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 (3) 상황판단 (75.00점)

상황판단은 나름 자신 있었는데 점수가 기대에 못 미친 과목이었습니다. 상황판단 과목도 딱히 유형 구분을 하거나 오답노트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판단 과목에서 못 푸는 경우는 대부분 퀴즈인데 퀴즈 문제의 경우 오답노트를 작성한다고 실전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설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정형화된 풀이를 마련하기 보다는 익숙해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전에서 PSAT을 풀 때 느낀 점은, 실전이 혼자 문제를 풀 때보다 훨씬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상황판단 영역을

풀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갈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습니다. 강의나 모강은 듣지 않았고 학교 고시반에서 진행한 박준범 강사님의 8시간짜리 특강은 1번 들어봤습니다.

## 2. 제2차시험 공부방법

### (1) 전반적인 공부방법

1) 공부시간: 공부시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6일을 목표로 하고 이를 가급적 지켰습니다. 다만 강의가 있는 날의 경우 경제학·행정법과 같이 긴 강의는 강의 제외 한 순공부시간이 5~6시간, 정치학·행정학처럼 짧은 강의는 순공부시간이 6~7시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2차 직전의 6월에는 하루에 9~10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인강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인강의 경우 1.2배속으로 듣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2) 생활: 저는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초반에는 오후부터 공부를 시작해 새벽 1~2시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차와 2차 시험 모두 아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상시각을 앞당길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2015년 말부터 기상스터디에 참가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2차 시험 때까지 약 8시에 도서관에 도착하였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어서 1~2시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하루 종일 졸린 상태로 있느니 머리가 맑은 상태로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의 경우 저는 스터디도 하지 않고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아침은 주로 편의점 음식을 먹고 점심과 저녁은 혼자 학교식당이나 집에서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체력관리의 경우 저는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학교 주변을 걸었습니다. 운동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체력관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신경성 위염을 달고 살았는데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고 나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 (2) 경제학(92.66점)

1) 개념 정리: 경제학은 제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과목으로 PSAT 공부, 2차 다른 과목 공부, 면접 준비를 모두 합쳐도 경제학에 투자한 시간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 경제학을 접해본 것은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과목으

로 공부한 것과 학교에서 원론 강의를 수강한 것이 전부였고, 고등학교 시절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초도 부족했습니다. <미시경제학>에 나오는 도함수,  $f'(x)$ 가 같은 것인지 유튜브 미적분 강의를 보고나서야 알았고, 미분의 개념을 몰라서 같이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수요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기초가 아예 없는 분이라면 김진욱 강사님의 무료 기초 경제수학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강의 정도면 행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은 전부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는 황중휴 강사님의 1순환, 김진욱 강사님의 2순환과 3순환을 수강하였지만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 순환강의의 진도에 맞춰 교수저를 많이 보았습니다. 미시에서는 <미시경제학>(이준구 저)을 5회,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임봉욱 저)을 도서관에서 빌려 1회 정독하였습니다. 거시에서는 <거시경제론>(정운찬·김영식 저)을 6회 정독하였습니다.

2) 문제 풀이: 문제 풀이는 교수저를 정독하면서 수록된 문제를 풀었고, 추가적으로 <트리니티 미시경제학·거시경제학>(황중휴 편저)을 2회, <미시·거시 600제>(김진욱)를 step 2~3 1회, <미거시 120제>(윤지훈)을 1회, <경제학 기출문제의 zip>(김진욱 저)을 2회, 순환 모의고사, 교수 모강들을 풀었습니다.

답안구성의 경우에는 항상 서술, 그래프, 수식 3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했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개념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교과서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서술과 그래프, 수식을 단순히 병렬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술 속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수식과 그래프를 연계해 작성하는 등 답안 구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2차 시험 직전에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놓은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풀이 과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진욱 강사님의 <600제>나 <기출문제의 zip>을 유용하게 봤습니다. 정말 질릴 정도로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보면서 '내가 모르면 남들도 다 모른다'는 자신감으로 1문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 (3) 행정법 (44.00점)

1) 강의 및 교재: 행정법은 2015년 김기홍 강사님의 예비순환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 고시반에서 예비~2순환을 김기홍 강사님 강의로 진행했었는데, 1순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저)을 꾸준히 읽

어서 2순환 기간까지 4회 정독하였습니다. 동시에 교수 사례집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에 <행정법 연습>(김향기 저)을 구매해서 마찬가지로 1회 정독하였습니다. 그런데 <핵심정리 행정법>과 <행정법 연습>의 체계나 설명이 다른 부분이 많아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2순환 기간에도 답안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3순환 기간에 정선균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행정법 연습>의 내용과 서술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은 강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본인과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과감히 강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고시반에서 지원해주는 강의라는 이유로 김기홍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저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정선균 강사님이나 김향기 교수님의 설명이나 서술방식과 맞았기 때문에 3순환부터는 <행정법 연습>과 <행정법 핸드북>(정선균 저), 정선균 강사님의 3순환 모의고사 등으로 공부했습니다.

2) 답안 구성과 2차 시험: 행정법 답안 구성의 경우 <행정법 연습>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례집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줄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줄 처리된 부분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판례 숙지에 집중하여 답안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2차 시험 직전에는 정선균 강사님의 3순환 모의고사와 제가 <행정법 연습>에서 체크해놓은 사례들을 한 번 훑어보았고 <행정법 핸드북>을 읽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 행정법이 제일 처음 과목이었는데, 제가 시험장에 당연히 시계가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시험 감독관님께 시각을 물어보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행정법 1문을 다 풀고 1시간 20분이 지나있었습니다. 이 때 상당히 당황했지만 1차 시험 때 상황판단 영역에서 포기하지 않고 풀어서 합격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40분 동안 필사적으로 2문과 3문을 풀었습니다.

#### (4) 행정학 (57.66점)

1) 강의 및 교재: 행정학은 제 전공인 경영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2차 과목 중 가장 수월하게 공부한 과목입니다. 행정학 강의는 박경효 교수님의 예비순환과 1순환,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박경효 교수님은 강의력이 뛰어나신 데다 교수 출신다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강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과서로는 <한국 행정학>(유민봉 저), <재미있는 행정학>(박경효 저)을 각각 3회씩 정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행정학>은 공부 초기에 활용하고, 이후에는 <재미있는 행정학>으로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과서 이외에는 사례 활용을 위해 <행정학 사례연구 : 성과와 교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이창길 외)를 도서관에서 빌려 1회독하였습니다.

2) 답안 구성 및 2차 시험: 답안 구성의 경우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 활용의 경우 박경효 교수님이 나눠준 논문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에 나오는 사례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의 경우 중요 사례를 공책에 따로 정리하고 틈틈이 보았습니다.

2차 시험 직전에는 <재미있는 행정학>에 밑줄 친 부분들만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딱히 서브를 만들진 않았고 주로 보는 교재에 밑줄을 치거나 필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교재를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제가 빠뜨린 내용을 보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박경효 교수님의 3순환 모의고사를 훑어보았고 제가 공책에 간략히 정리한 사례와 통계들을 외었습니다.

#### (5) 정치학 (67.00점)

1) 개념 정리: 글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다독다작다상량(多讀多作多商量)’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행시 과목 중에는 정치학이 가장 다독(多讀)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시기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고, 특히 공군사관학교에서 군 복무를 하는 행운을 누리 사관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이 때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과 같은 사회비평 에세이들을 많이 읽었는데, 정치학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후의 정치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시 준비 이후에는 김희철 강사님의 예비순환, 2순환과 3순환을 수강하였고 <펀더멘탈 정치학>(김희철 저)을 4회 정독했습니다. 그 외에는 <왓츠 이후>(이근욱 저),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진영재 편저), <정치학 총론>(진영재 저) 등 단행본을 도서관에서 빌려 13권 정도 읽었고, 김희철 강사님의 강의자료를 정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학은 예비순환과 3순환 정도만 듣고 나머지는 다양한 단행본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답안 구성 및 2차 시험: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서브는 만들지 않았고 <핀더멘탈 정치학>을 정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단행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구들을 옮겨 적어놓고 암기하였습니다. 2차 시험 전 날에는 그 부분만 빠르게 훑었습니다. 김희철 강사님의 강의자료는 주요 논점에 포스트잇으로 체크를 해놓고 시험 전 날에 다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 (6) 인사조직론 (37.66점)

1) 개념 정리: 당시 인사조직론이 처음 생긴 과목이고 수험생도 적어 인강도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부분에서는 <한국인사행정론>(유민봉·박성민 저), <현대인사행정론>(박천오 저)을 1회씩 정독하였습니다. 조직 부분에서는 <휴먼조직론>(김병섭 저)을 참고하였고 제 전공인 경영학 전공 서적들도 훑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재미있는 행정학>이나 박경호 교수님의 강의에서 제공한 논문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교과서 외로는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이나 보도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행시는 시험의 특성상 직면한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인식과 해결 방안을 묻게 되는데,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에 관련된 정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들의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인사조직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답안 구성 및 2차 시험: 답안 구성은 최대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쓰되, 정부 인사조직의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과 현행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조직론 문제에서 다양성 관리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다양성 관리 정책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 인사전략에서 다양성 관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양성 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해당 정책 뿐 아니라 연계된 인사정책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등도 적었습니다. 또한 목차에 '전략적 접근' 등의 용어를 명기하여 제 의도를 뚜렷이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 3. 제3차시험 공부방법

#### (1) 집단토론

집단토론의 경우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한 번 참여해보시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호승심이 강한 편이라 처음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터디원들의 토론을 관찰한

이후 집단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단토론을 관찰하다 보면 내용은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지만 좋지 않은 태도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집단토론을 할 경우 공격적인 표현은 최대한 삼가야 하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메모하면서 상대와 눈을 맞추고, 미소 띤 얼굴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집단토론 때 제 말이 안 들렸다고 하셨는데, 집단토론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 (2) 개인발표

저는 경영학과인데다 잠시나마 교내 컨설팅 학회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발표의 경우 크게 PT 용지 작성과 발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PT 용지 작성의 경우 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도표가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줄글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발표 부분에 있어서는 침착하게 진행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면접자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상대의 질문에 공감하는 말을 하면서 대답을 생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많은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 (3) 인성면접

인성면접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으로 전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면접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공직지원 동기를 비롯한 면접자의 인성에 대한 질문이며 둘째는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직무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첫째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동아리 회장 경험이나 군대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본인에게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험생들 역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경험을 강조하기보다는 본인의 공직지원동기와 경험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직무역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면접에서 ‘하급자들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상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중간 관리자로서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첫째 상급자가 합리적이고 하급자가 비합리적인 경우, 둘째 상급자가 비합리적이고 하급자가 합리적인 경우, 셋째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합리적인 경우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말할 것이 많으면서 생각이 깊다는 인상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IV. 나가며

행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경제학 3순환 1회 모의고사 1문을 전혀 몰라 백지를 내기도 했고, 1차·2차·3차 시험 전 잠이 오질 않아 항상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수기를 쓰는 지금도 합격했다는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모두 한바탕 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많은 수험생 분들과 같이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굳이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인지 수많은 고민들을 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웹툰 <미생>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다소 길지만 수험생 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쓰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도 반집으로 바둑을 지게 되면, 이 많은 수들이 다 뭐였나 싶었다. 작은 사활 다툼에서 이겨봤자, 기어이 패싸움을 이겨봤자 결국 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의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항해 살아준 돌들이 고맙고, 조금 썩이라도 삭감에 들어간 한 수, 한 수가 귀하기만 하다.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미생, 67수)